

大學의 主體性 시비

'80년대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大學文化'에 대하여 열려하는 소리가 높아왔다. 이것은 대학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그 배경에는 지난 '70년대 유신시대 이후 암울한 역사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경험이나 과거를 성찰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데 '대학문화'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은 大學의 主體性 시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를 전후하여 '주체'라는 용어가 불현듯 학생사회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도 있었지만 대학문화라는 관점에서만 말한다면 대학이 누구의 대학이며, 대학은 누구에 의하여 지켜지고, 그리고 대학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실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학의 주체는 學問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주체는 교육행정당국이나 대학행정기구 또는 교수, 더 나아가 학생이나 졸업생 등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목표로 하는 학문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구성원은 학문의 발전과 학문의 계승을 위한 협조자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론 학문이 지녀야 할 그 시대적 또는 역사적 성격이나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수는 學問의 目標가 자유와 창조, 평화와 정의, 진보와 참여라는 사실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해야 할 일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조직이나 법률 따위가 학문을 위한 것이냐 또는 학문과는 배치되는 것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評價는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전향성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는 바로 이러한 평가나 논의의 구조가 열려 있고, 그 평가의 기준이 분명하며, 더 나아가 평가의 결과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실천되도록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은 학문의 보루이며, 동시에 실천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 학문은 분명히 새 역사를 향한 활력이 되어야 하고, 새 사회의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학문화에 있어서 다른 측면으로 대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傳統이다. 전통은 복합적인 실체이다. 전통은 축적된 진리이다. 그것은 대학 공동체가 긴 역사를 경험하면서 쌓아올린 그리고 전승되어 온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일'의 전망이 되어야 한다. 전통은 어느 누구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폐기될 수는 없으나,

聖公會神學大學長 李 在 禎



부단한 노력으로 새로운 해석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전통이 율법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우리 자신을 또는 그 시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現象學의 力動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을 살리자는 말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거나 복원시키거나 또는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전통'을 만들어 文化的 生動力을 찾자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대학은 그 대학문화에서 전통을 다시 음미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전통이 왜곡되었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바로잡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학문과 전통. 이 두 가지는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이다. 학생들이 주체일 수도 없고, 이사회가 주체일 수도 없다. 다만 이들이 모두 학문과 전통에 대한 남다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교수들이 주체일 수도 없고, 정부가 주체가 될 수도 없다. 다만 이들은 대학이 학문을 지키고 전통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자기 다른 직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문화는 결코 대학이라는 조직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大學文化가 어떤 位相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상황을 판별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학문의 지향이 무엇이며, 전통의 활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일반사회는 크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문화는 대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정부나 이사회에 따라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여기에는 오히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과 상대를 경청하는 인내와 상대를 이해하는 관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私學의 正體性 또는 사학의 主體性도 역시 학문과 전통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행이 과감히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과거에 잘못되었던 주장이나 이해도 거두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제도적인 장치의 변화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고쳐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大學文化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되고 改革되어야 할 때가 왔다. ■